

바스켓볼 브레이크

올림픽 티켓 대회 코 앞인데... 농구대표팀 새 감독 '구인난'



남녀농구대표팀 사령탑 구인난이 여전하다. 2014인천아시안게임 남자농구 금메달을 일군 유재학 감독은 건강상의 이유로 고사 의사를 전달했다. 남자대표팀 사령탑 선임은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유재학·유도훈 감독은 제외만 확실 퍼슨 전 코치 선임설엔 "내년 검토중"

남녀농구대표팀의 사령탑 선임이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남자대표팀은 중국 후난성에서 열릴 아시아남자농구선수권대회(9월 23일~10월 3일), 여자대표팀은 중국 우한에서 펼쳐질 아시아여자농구선수권대회(8월 29일~9월 5일)를 각각 앞두고 있다.

●원점으로 돌아간 남자대표팀 감독

대한농구협회는 5일 서울 방이동 협회 사무실에서 경기력향상위원회를 열고 대표팀 사령탑 선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서도 해답은 나오지 않았다.

방열 대한농구협회장은 "프로 감독들은 새 시즌 일정이 앞당겨져다보니 운신의 폭이 좁더라. KBL과 의견조율을 통해 이른 시일 내 남자대표팀 감독을 선임하려고 한다."

●외국인 감독 선임설의 배경은?

최근 농구계에선 새로운 남자대표팀 감독 후보로 척 퍼슨(51·미국) 전 KCC 코치가 물망에 올랐다는 소문이 퍼졌다. 퍼슨 전 코치는 미국프로농구(NBA) 1986~1987시즌 신인상을 수상한 스타플레이어 출신의 지도자로, 2013~2014시즌 KCC 코치를 역임한 바 있다.

엑스골프, 티클라우드CC 그린피 할인

엑스골프는 6월 중 티클라우드CC 골프장을 선결제료 이용하면 그린피를 할인해준다. 인터넷 예약 후 4명이 그린피를 선결제할 경우 최대 34%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고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엑스캐시 1만원을 적립해준다.

힐라골프 자외선 차단 '래쉬가드' 선패

힐라골프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래쉬가드'를 출시했다. 95% 이상의 자외선 차단 효과를 지닌 기능성 소재를 사용했고, 부드러운 착용감과 스트레칭성이 뛰어나 골프 및 야외 스포츠 활동에 적합하다.

혼마골프와 함께 하는 허윤경의 매직레슨 4 페이스 중앙에 맞혀라

페이스·볼 '중앙 정렬'이 퍼트의 정석



1 어드레스 때 퍼트 헤드의 윗부분에 그려진 선과 공의 화살표 또는 로고를 일직선으로 정렬하면 정확한 퍼트에 도움을 준다. 2 스트로크 후 최소 1~2초 동안은 머리를 들지 말고 원래 공이 놓여 있던 지점을 바라보자. 어느 정도 공이 굴러간 후에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려 원하는 지점으로 잘 굴러가고 있는지 확인해도 늦지 않다.

어드레스때 헤드 부분 선과 공 로고 나란히 공 움직여도 몇 초 동안은 머리들지 않도록 짧은 거리 퍼트 집중력 싸움...신중 기해야

프로골퍼들의 매직플레이 경기를 보면 종종 짧은 거리의 퍼트를 두고 신경전을 펼칠 때가 있다. 초반에는 1m 이내의 짧은 거리를 남겨두고 컨시드를 후하게 주다가도 후반으로 가면 인색하게 변한다.

먼저, 볼의 중앙을 퍼트 페이스 중앙에 맞추



려고 노력해야 한다. 프로골퍼들이 짧은 거리 퍼트에서 높은 성공률을 보이는 이유는 공을 페이스 중앙에 정확하게 잘 맞추기 때문이다. 시작은 어드레스다. 퍼트 헤드를 공 뒤에 내려놓을 때부터 페이스 중앙에 정렬한다.

스트로크할 때는 볼이 움직이기 시작한 뒤 최소 몇 초 동안은 머리를 들지 말고 원래 공이 놓여 있는 지점을 바라보는 습관을 들이자. 골프의 명언 중에 퍼트는 '눈으로 보지 말고 귀로 들어라'는 말이 있다.

도 중요한 기술이다. 짧은 거리의 퍼트를 자주 놓치는 골퍼들을 보면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스트로크할 때 퍼트 헤드로 공을 확실하게 밀어주지 못한다.

이승훈 최강 '매스스타트' 평창올림픽 정식종목 올랐다

(집단출발)

IOC, 컬링 혼성 등 6개 세부종목 승인 평창올림픽 금메달수 102개 '역대 최다' 빙상연맹, 매스스타트 집중 육성 돌입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 한국이 호재를 만났다. 한국이 강세를 보이는 스피드스케이팅 매스스타트(집단출발)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돼 또 하나의 금메달을 노릴 수 있게 됐다.

이 가운데 매스스타트의 정식종목 합류는 한국이 가장 기다리던 소식이다. 지난해 6월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의결한 매스스타트는 쇼트트랙처럼 여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한국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스피드스케이팅 매스스타트(집단출발)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이 종목 최강자인 이승훈이 있기에 한국에는 호재다.

러 선수가 동시에 출발해 지정된 레인 없이 16바퀴(6400m)를 달리는 방식이다. 4바퀴마다 결승선을 통과하는 1~3위 선수에게 정해진 포인트(5·3·1점)를 부여하고, 최종적으로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서에 따라 파이널 포인

트(60·40·20점)를 매겨 이 점수들을 합산해 순위를 결정한다. 기록경기인 스피드스케이팅에 쇼트트랙 레이스의 묘미를 가미했다.

KOC 임시대의원총회... "국생체 통합, 언론통폐합 같다" 비판

대한체육회는 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 1층 올림픽아울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국민생활체육회와의 통합 일정은 2017년 2월로 1년 늦추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다음 대의원총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박태환 인천AG 메달, 후순위 선수에 넘겨

2014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청산단은 금지약물 복용으로 선수자격 정지, 인천 아시안게임 메달 및 성적 몰수를 당한 박태환(28)의 메달과 상장을 후순위 선수에게 넘겼다고 9일 밝혔다.

광주시, 하계유니버시아드 선수촌 점검

광주시가 2015하계유니버시아드 개막을 24일 앞둔 9일 오전 참가 선수들과 임원들이 머물 선수촌을 점검했다. 이날 운영진 광주시장은 선수촌 종합상황실·등록센터-경기정보센터-종합안내센터-선수촌병원-국기광장-피트니스센터-선수촌식당-선수촌라운지-전시관 등 선수단이 도착해서부터 움직이게 될 동선을 따라 모든 시설들을 꼼꼼히 살폈다.